

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중국몽 :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

유희복**

목 차

- I. 서론
- II.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모순론
- III. 신중국 이후 주요 모순의 변천과 대내외적 함의
- IV.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주요 모순의 재규정
- V. 결론

한글초록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2017년 10월, 1981년부터 근 40년간 공식화되었던 주요 모순을 다시 규정했다.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 간의 모순은 이에 따라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변경되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4164).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시간강사

주요 모순의 규정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며 발전하기 위한 인식 및 실천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요 모순과 내용 및 대내외 환경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전의 주요 모순들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선언한 ‘신시대’와 함께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몽’ 실현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주요 모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몽, 시진핑 사상, 세력전이

I. 서론

이 글은 2017년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주요 모순(矛盾)의 재규정’이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통해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정책 및 물질적 변화가 ‘모순’의 규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시진핑의 주요 모순 재규정이 중국몽의 실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현 시진핑 정권의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향후 중국몽 실현에 필요한 중국의 이념, 정책 및 물질적 변화의 대내외적 방향 재설정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중국이 향후 전개할 정책 내용과 그 유무형적 자원의 실제 이동 및 그 기저에 놓인 이념적 지향의 근거로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모순론』을 통해 ‘모순’ 개념의 유효성과 그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모순은 곧 운동이자

사물이고, 과정이자 또한 사상이다. 사물의 모순을 부정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毛泽东, 1991: 319).¹⁾ 실제로 ‘주요 모순’의 규정은 중국에서 중대한 정치·역사적 의미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신중국 건설 이후,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이 직면한 주요 모순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는데, 먼저 1949년 3월 5일 7기 2중 전회 보고에서 그는 혁명이 승리하고 토지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노동자계급과 자산계급의 모순”과 “중국과 제국주의 국가의 모순”이라는 두 가지의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1956년 9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선진 산업국가 건설에 대한 인민의 요구와 낙후한 농업국가라는 현실”을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인 1957년 10월, 8기 3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모순을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사회주의 발전 방식과 자본주의 발전 방식”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규정했다.²⁾ 세 번째 모순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듯 잘못된 규정이었고, 그 결과 중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권력의 전면에 등장한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1개 중심과 2개 기본점’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1979년 3월 ‘이론학습실무회’에서 “인민과 국가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생산력”을 당시 중국이 직면한 ‘주요 모순’으로 규정했다. 이후 1981년 6월 11기 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주요 모순을 마오쩌둥의 계급투쟁에서 ‘인민의 물질문화 수요 증가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 간에 발생한 것으로 공식 재규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矛盾即是运动, 即是事物, 即是过程, 也即是思想。否认事物的矛盾就是否认了一切。”

2) 理論網, <http://www.cntheory.com/zydx/2018-01/ccps1801095H2V.html>(검색일: 2018.1.28.).

정하며 덩샤오핑의 이론과 개혁개방 정책에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현 중국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미국과 함께 G2로서의 중국을 있게 한 이 ‘주요 모순’의 규정은 1981년 이후 근 40년이 지난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개최 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시진핑은 동 대회에서 현대 중국의 운명을 좌우해 온 이 ‘주요 모순’에 대해 재규정을 단행한 것이다.

중국에서 주요 모순의 규정이 갖는 실제적 의미는 지난 역사가 이미 증명한 바와 같다. 카아(Carr, 1961)는 역사가 사실과 함께 해석의 영역이며, 또한 그 해석은 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역사는 과거의 유산으로 잔존하는 실재와 해석, 그리고 권력을 통해 현재와 미래로 연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2017년 시진핑의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의 ‘모순’과는 달리 과거가 아닌 현재임에도 과거 주요 모순의 규정이 갖는 전략적 기능과 의미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중국몽’의 실현과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 연결된다. 따라서 시진핑 정권이 재규정한 ‘모순’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시진핑의 주요 모순 재규정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전략적 대비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모순의 재규정’을 통해 이뤄졌다면, 시진핑 정권의 ‘주요 모순의 재규정’ 역시 향후 십수 년 혹은 수십 년간 중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 대내외 전략적 함의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적 분석의 필요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 ‘모순’의 토양인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창당과 혁명

투쟁 과정에서 코민테른의 지시 및 교조주의에 반대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실천적으로 이끌었던 마오쩌둥의 혁명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정수는 대장정 이후 옌안(延安)에서 정리된 마오쩌둥의 두 저작, 즉 『실천론』과 『모순론』에 압축되므로 본 장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마오쩌둥의 모순론이 갖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 규정된 주요 모순의 변천과 그 대내외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 선언과 함께 재규정한 주요 모순이 갖는 전략적 함의 분석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4장은 ‘중국몽’ 실현을 본격 추진해 온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 주요 모순을 재규정한 대내외 전략적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언이 갖는 전략적 관계와 의미의 규명을 시도한다. 결론에서 이 글은 시진핑의 주요 모순 재규정과 ‘신시대’의 선언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이며, 그 목적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통해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국제무대 중심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II.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모순론

1.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 량치차오(梁啟超), 주즈신(朱執信)과 같은 진보 지식인들에 의해서였다. 이 시기는 중국에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서구 사상들이 함께 유입되기 시작한 때였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이론적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아니었다.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본격적인 수용을 촉발시켰던 역사적 사건은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1919년 5·4운동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은 중국에게 단순한 서양 이론의 현실 적용 혹은 실험이나 인접 국가의 정치적 사건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과 코민테른 창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마르크스주의는 평등에 기초하고, 봉건주의를 타파하도록 했으며, 공상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과학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를 포함한 소수 지배계급에 대한 억압받고 착취되어온 다수의 혁명과 지배라는 ‘민주’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사상적 요소들은 중화의 붕괴라는 민족 자존감의 저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등 당시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타파하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서의 생존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1919년 5·4운동이 일본을 포함한 반제국주의 운동, 애국운동이자 반봉건주의, 과학과 민주를 외친 계몽운동이자 신문화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방향을 잃고 국력을 상실한 중국의 사상적 토양에 깊게 뿌리내릴 내적 요소와 외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1차 대전 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는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 중국의 민족적 자존심,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대해 각성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근대화와 국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그 사상 및 이론적 기반이 될 ‘주의’(主義)를 모색하도록 자극했다.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부국강병의 길로 향하기 위해 당시 중국이 찾던 ‘주의’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이나 전반서화(全盤西化) 등

기존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전통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평등, 민주, 과학과 같은 서구의 새로운 가치 및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동시에 담지한 것이어야 했다.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에 이어 1919년 1월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된 파리 강화 회의는 중국이 찾던 ‘주의’에 대한 갈증을 더했고, 마르크스주의는 중국의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줄 ‘주의’로 선택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과 토양에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1919년 5·4운동 발생 2년 후인 1921년 7월 창당되었다.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의해 척박해진 중국의 사상적 토양에 마르크스주의를 이식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물론 중국 공산당 창당에도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천두슈(陳獨秀)와 리따자오(李大釗)였다. 두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의 중국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즉, 천두슈가 중국의 전통과 현실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교조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려 했다면, 리따자오는 전통의 가치와 농촌과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국가로서 당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중국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려 했고, 반봉건, 애국, 민족, 민주를 옹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처음부터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라는 공통적 기반 위에서 ‘중국의 전통과 현실’을 두고 교조주의와 지역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즉,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에 관한 시각이 충돌하며 출발했다는 것과 마오쩌둥은 양자의 공통 기반 위에서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마오쩌둥은 리따자오에 동조하며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중국의 현

실을 고려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⁴⁾ 그의 이런 시각은 혁명사업의 전개와 국민당과의 투쟁 과정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강화되었다. 즉,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코민테른의 노선과 지시가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교조주의에 함몰되어 1927년 4·12사건을 야기시키고 중국 공산당 세력의 급격한 축소와 국공합작의 붕괴를 초래했고, 1934년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홍군에 적합한 게릴라 전술 대신 정규전을 전개함으로써 공산당을 괴멸 직전으로 내몰아 대장정에 올라야 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한 마르크스주의의 적용에 대한 마오쩌둥의 시각과 주장은 1935년 1월 대장정 도중 열린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즉 쑨이회의(遵义会议)에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중국이 소련과 코민테른의 일방적인 노선과 지시에서 벗어나 자체의 현실을 고려해 사회주의 혁명을 전개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는 데 일조했다. 마오쩌둥의 이러한 혁명경험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성찰은 1937년 그가 옌안에서 쓴 『실천론』과 『모순론』 두 저작에 집약되었고, 이후 그의 사상은 신중국 성립을 전후하여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특히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화 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중국식 발전 경험의 융합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형성

3)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초기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두 갈래 해석 혹은 과학(Science)과 비판(Critique)으로서 ‘두 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서진영, 1992,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Gouldner, A. W., 1980, *The Two Marxisms: Contradictions and Anomalies in the Development of Theory*, London: Macmillan.

4) 실제로 그는 장궈타오(张国焘)를 포함해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려 한 천두슈 등 당내 일부 인사들이 “잘못된 사상(错误思想)”을 가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毛泽东, 1991, 『毛泽东选集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하고 있으며, 시진핑 지도부에 의해 ‘중국몽’ 실현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서 중국의 이념적, 제도적 근간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변용 및 진화되고 있다.

2. 마오쩌둥의 모순론

장정 이후 1937년 옌안에서 마오쩌둥은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논한 『실천론』과 유물론적 변증법, 즉 사물의 대립과 통일에 관한 법칙을 논한 『모순론』을 출간했다. 두 저서는 모두 그가 옌안항일군정대학(延安抗日军政大学)에서 철학강의를 위해 작성했던 글을 바탕으로 하며, 그가 중국 혁명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사유했던 바를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논술한 것이었다. 따라서 두 저서에 나타난 마오쩌둥의 사상은 분명 중국적 특색을 구비하고 있었고,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함께 중국 공산당 사상노선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그의 사상은 1942년 정풍운동을 거쳐 1945년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지도이념으로 채택되기에 이른다.

『실천론』이 193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이 전개한 중국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주관주의의 폐해, 즉 교조주의와 경험주의가 초래한 피해를 비판하고 이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수정하기 위해 쓰였다면, 『모순론』은 동일한 목적으로 방법론적 차원에서 좌경 및 우경주의 오류를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쓰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실천론』과 『모순론』은 모두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시각에서 항일투쟁 및 국민당과의 투쟁을 포함한 ‘중국 혁명’이라는 실천과 어떻게 융합시켜 인식하고 실천했어야 했고 또 해야 하는가를 논한 존재론이자 인식론, 방법론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중국 공산당의

사상노선, 그리고 중국의 체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철학 및 전략적 사유의 기초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⁵⁾

특히 『모순론』의 내용과 그에 담긴 마오쩌둥의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오쩌둥은 모순론을 통해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그에서 이탈했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거나 종속적 관계로만 파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순을 경제체제에 국한하거나 결정론적 시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가 특정한 조건에서 모순의 몇 가지 측면들이 상호 전화(轉化)하며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⁶⁾ 그러나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가한 해석 중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인식과 실천은 물론 연구와 정치 및 군사 전략전술 방침 결정 등에 활용되어야 할 방법론으로서의 ‘모

5) 이는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목적이 “무산계급혁명사업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종교의 교리가 아닌 행동의 지침이므로 개별 자구(字句)들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무지몽매한 것이고, 그 입장, 관점과 방법을 중국의 역사와 혁명을 고려한 실제에 응용해 중국의 필요에 맞는 이론적 창신을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毛泽东, 1991, 『毛泽东选集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p.820.

6) 다음은 특정 조건의 확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전화와 그 요인으로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정신에 관한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사실 생산력, 실천, 경제적 기초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그러나 생산관계, 이론, 상부구조라는 측면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거꾸로, 주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점 또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의 발전에서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을 결정하고,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신적인 것의 반작용, 사회적 의식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반작용, 상부구조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반작용도 인정, 반드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이등연 옮김, 1989, 『실천론·모순론』, 서울: 두레문고, pp.77-78.

순론'이다(마오쩌둥, 1989: 78). 『모순론』의 결론은 마오쩌둥의 저술 취지와 마르크스주의 및 유물변증법에 대한 시각을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를 위해 그가 탐구했던 '모순'의 현실적, 전략적 가치와 해석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에 그 주요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물의 모순 법칙, 즉 대립과 통일의 법칙은 자연과 사회의 근본 법칙이며 따라서 사유의 근본법칙이다. …(중략)…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 의하면 모순은 객관적 사물과 주관적 사유의 모든 과정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모순의 보편성과 절대성이다. 모순하고 있는 사물 및 그 각각의 측면은 각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모순의 특수성과 상대성이다. 모순하고 있는 사물은 일정 조건에 의해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동일체 속에 공존할 수 있고 또한 서로 상반된 측면으로 전화해 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모순의 특수성과 상대성이다. 그러나 모순의 투쟁은 끊임이 없으며 모순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도 상호 전화하고 있을 때에도 투쟁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상호 전화할 때에는 투쟁이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 또한 모순의 보편성과 절대성이다. 우리가 모순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연구할 때에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과 주요하지 않은 측면의 구별에 주의해야 하며 모순의 보편성과 투쟁성을 연구할 때에는 모순의 여러 가지 다른 투쟁형식의 구별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만약 연구를 통하여 위에서 서술한 요점들을 진실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반되고 우리의 혁명사업에 불리한 교조주의 사상들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동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정리시키고, 원칙성을 갖게 하여 경험주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마오쩌둥, 1989: 96-97).

이상의 세계관과 논리적 시각의 종합을 통해 그는 중국 혁명의 완수와 사회주의 중국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신만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당원에게도 습득하도록 권유하고 또 적용했다. 그는 공산당 내 교조주의, 주관주의, 경험주의의 폐해 극복과 혁명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천론과 모순론 두 저작을 저술했지만, 두 저작에 담긴 마오쩌둥의 사상과 논리는 이후 실제 적용에서 그 이상의 해석과 변화를 거치며 변용되었다. 즉, 마오쩌둥은 『모순론』에서 변증법적 세계관, 모순의 보편성과 특수성,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 동일성과 투쟁성, 적대와 비적대의 개념 등을 통해 유물변증법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가하고, 이를 통해 혁명 시기는 물론 평시에도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정세와 전략적 필요에 따라 대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이를 반복하거나 재규정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⁷⁾

III. 신중국 이후 주요 모순의 변천과 대내외적 함의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내재한 모순의 정반합이라는

7)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전화(轉化), 모순과 여러 측면 간 전화, 중국의 역사와 전통 강조, 공산당과 실천의 강조 등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본래의 이론적 정통과 이상에서 이탈시키고 현실 정치를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 변용시켰다. 이 때문에 김도희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가 보편성의 상실과 개인의 약화, 국가와 민족의 부각과 국민과 계급의 소멸을 가져왔고, 전통으로 민족을, 당 권력으로 국가를, 시장으로 국가의 부강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본연의 가치와 이상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한다. 김도희, 2014,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에 대한 고찰 - 중국 사회주의 정체성의 근원을 찾아서 -」,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pp.1-24.

변증법적 변화를 그 논리적 설명력의 핵심으로 삼는다. 지난 세기 초,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과정에서, 특히 ‘실천론’과 함께 마오쩌둥의 양대 저서 중 하나인 ‘모순론’을 통해 ‘모순’의 개념을 수용 및 재정립했고(Schram, 1989), 이를 기초로 마오쩌둥은 자신은 물론, 덩샤오핑과 현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주요 모순을 규정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현 시진핑 정권까지 행해진 주요 모순의 규정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주요 모순의 규정은 대내외 정세 및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직후 토지개혁이 진행되기 전까지 중국의 주요 모순은 “인민대중과 제국주의, 봉건주의 그리고 국민당 잔여세력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52년 말까지 토지개혁과 봉건주의 타파 및 국민당 잔여세력에 대한 투쟁이 함께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토지개혁 완성 후 사회주의 개조 시기 또는 과도기로 들어선 1953년부터 1956년 말까지 주요 모순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이었다. 이 주요 모순에 대한 민주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결과로 신중국 성립 후 자신이 안고 있던 대내외 주요 모순들을 해소했다고 판단한 중국 공산당은 1956년 제8차 당대회에서 이제 새로운 주요 모순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1956년 9월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한 중국 공산당이 동 대회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요 모순은 “선진 공업국가 건설에 대한 인민의 요구와 낙후된 농업국가의 현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인민들은 신속한 경제문화 발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당시 중국의 경제문화가 이러한 중국 인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주요 모순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주요 모순의 투쟁이 더 이상 ‘계급’ 간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자, 주요 모순의 초점을 ‘계급’에서 ‘발전’문제로 이동시킨 것이었

다. 이후 중국 공산당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8차 당대회의 이러한 주요 모순 규정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이 주요 모순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모순”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모순의 초점을 ‘발전’문제에서 다시 ‘계급’문제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1957년 10월 8기 3중전회(八届三中全会)에서 마오쩌둥이 다시 규정한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모순, 사회주의 노선과 자본주의 노선의 모순”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대내외 상황에 대한 마오쩌둥의 인식을 반영하고 또 향후 중국 공산당의 전략 노선 방향을 가리키는 일종의 나침반이었다. 8차 당대회의 결정을 뒤집은, “의심의 여지없이”(毫无疑问) 당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규정된 이 모순은 대외적으로는 당시 스탈린(Joseph Stalin)을 비판한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의 노선과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반소 봉기와 소련의 대응,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1957년 초,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의 비판적 의견을 분출시킨 “쌍백(雙百), 즉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齐放, 百家争鸣)” 방침으로 인한 마오쩌둥의 불만과 불안의 결과였다. 그의 불만과 불안은 대내적으로 그 전부터 인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순, 즉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관료주의, 반종파주의와 반주관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풍운동(整风运动)을 채택하도록 했는데, 이는 결국 반우파투쟁으로 이어지며 중국의 좌경화를 촉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소들로 인해 마오쩌둥은 8차 당 대회에서 이미, 그리고 올바르게 결정된 ‘발전’에 초점을 둔 주요 모순을 다시 규정하고, 1958년 5월 초유의 제2차 회의 즉, 제8차 당 대회 ‘2차 회의(八大二次会议)’를 개최하고 여기서 동 주요 모순을 확정함으로써 주요 모순 규정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62년 9월에 개최된 8기 10중전회(八届十中全会)는 이

를 체계화한 회의였다(郝宇彪, 2017: 10-11).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오류로 인해 규정된 1957년의 주요 모순은 이후 1981년 11기 6중 전회에서 다시 규정될 때까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효율적이며 소모적인 정책에 자원과 인력은 물론 시간을 낭비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인식적 토양을 제공했다.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을 결정한 주자파(走資派) 덩샤오핑은 1957년 마오쩌둥이 규정한 그 주요 모순을 그 직전 해인 1956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규정한 주요 모순으로 다시 되돌렸다. 즉,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은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 당의 업무 중심을 이동시킨 ‘주요 모순’의 재규정이었다. 이는 시대착오적 주요 모순 규정으로 낭비된 지난 20년을 보상하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덩샤오핑의 결단이었으며, 현재 G2로서의 중국을 있게 한 물질,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 결정이었다. 1981년 11기 6중 전회에서 통과된 《역사결의》(历史决议)를 통해 규정된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의 주요 모순은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다시 규정되기 전까지 40년 가까이 중국의 대내외 전략과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17년 10월 현 시진핑 정권에 의한 ‘주요 모순’의 재규정이 있기 전까지, 현대 중국에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주요 모순’의 규정과 재규정이 있었다. 이를 위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공히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해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해석에 따른 실천적 도구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서진영, 1997: 120). 이로 인해, 그간에 규정된 ‘주요 모순’은 각각 중국이 처한 시대적, 대내외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지도자 혹은 지도부의 시대 인식과 정치적 위상 및 전략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순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시기별 대내외적 환경, 그리고 그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과 판단에 대한 분석과 직결된다. 그러나 ‘주요 모순’은 대립하는 모순의 두 측면을 하나의 명제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 압축적 규정의 특성으로 인해, 시기별 혹은 시대에 걸쳐 진행된 다수의 정책과 거시적 전략에 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분석보다 효율적으로 중국의 정책과 전략의 핵심과 원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 배경과 지도자의 인식적 지표로서의 역할에 더해 ‘주요 모순’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이정표와 나침반의 역할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주요 모순’의 규정을 통해 시대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시 말해, ‘주요 모순’의 규정은 실천에 선행했다. 실천을 통해 ‘주요 모순’ 규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경우나 전략적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중국은 모순을 재규정하고 다시 실천을 통해 그 정확성과 적실성을 검증했다. 이는 1949년부터 1957년까지 불과 10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모순’이 규정과 재규정을 거쳤던 사실이 잘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모순’은 실천에 선행하며 중국 지도부의 대내외 환경 인식과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과 정책 집행의 이정표와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현재의 중국을 만든 1981년 11기 6중 전회에서 행해진 ‘주요 모순’의 규정이 증명한다.

전술한 ‘모순’의 변화 과정과 두 가지 전략적 기능에 더해, 현 시진핑 정권이 규정한 ‘모순’의 해결방안 및 과정에 대한 추적도 모순의 전략적 역할 규명에 필요할 것이다. 비록, 모순의 규정은 압축성과 방향성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포괄성과 예측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

저,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그 일례를 보여준다. 동 회의에서 중국은 2018년의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불균형 해소 및 지속가능 성장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이를 위해 공급측 개혁, 기업경영 활성화, 전면 개방 등 8대 핵심사업을 제정했다(한국무역협회, 2017). 동 회의에서는 또한 2018년부터 향후 3년간 중대 위험 대비, 빈곤구제 강화, 오염방지 노력이라는 ‘3대 난제’ 극복 목표도 제시되었다(<http://www.chinacore.com> 검색일: 2018.3.17.).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 목표의 달성 촉진을 위해 2월 11일 다량산(大凉山)에 위치한 산허(三河)촌과 화푸(火普)촌을 찾아 빈곤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등(<http://kr.xinhuanet.com> 검색일: 2018.2.28.), ‘모순’의 해결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처럼, 시진핑 정권 하에서 재규정된 모순에서 ‘불균형’이 경제발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불충분’은 주로 행정과 법치 그리고 발전방식 개혁 등 정치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郝宇彪, 2017: 12-13). 여기서 ‘불충분’의 의미가 선거 등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시진핑은 물론 이전 지도부를 포함한 중국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변화 혹은 진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국내 차원의 ‘모순’과 함께, 모순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侯德泉, 2017: 30). ‘모순’은 인민 내부를 포함한 국내 사회를 대상으로만 규정되지 않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중국 학계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성에 대해 선명한 인식을 보여온 것 역시 사실이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체제

로의 개혁이 진행되던 과도기 시기의 주요 모순을 중국은 ‘인민대중과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국민당 잔여세력 간의 모순’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서 ‘제국주의’는 사실상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을 지칭한 것으로, 이는 ‘모순’이 단순히 한 국가의, 자본주의 내부에 국한된 경제적,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전에 규정된 ‘모순’은 특히 그 국제적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소위 ‘신민주주의혁명’ 초기, 중국 공산당은 ‘제국주의’를 3대 주요 모순의 하나로 규정했고, 항일전쟁 시기, 특히 1937년 마오쩌둥은 “중일 간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 되었고, 국내의 모순은 차위(次要) 및 복종적 지위로 하락”했다고 선언함으로써,⁸⁾ ‘모순’ 규정의 국제적 특성과 함께, 국내적 모순과의 관계 및 모순 간 서열 등 모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 바 있다.

국내 사회적 특성과 함께, ‘모순’의 이 같은 국제적 특성은 현 시진핑 정권이 강력 추진 중인 ‘중국몽’의 실현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 무대의 중앙으로 ‘복귀’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기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자신이 주재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집체학습(集體學習)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그 그간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그 세계적 동향에 대해 여러 차례 학습했는데, 그 횟수와 내용에서 전임 후진타오 지도부보다 더 빈번하고 다양해졌다. 즉, 시진핑 집권 1기의 집체학습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 유물론의 기본 원리와 방법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등을 포함해 사상을 유독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양갑용, 2017: 147-148). 실제로 2002년 12월 후진타

8) 理論網, <http://www.cntheory.com/zydx/2018-01/ccps1801095H2V.html>(검색일: 2018.1.28.).

오에 의해 부활 및 정례화된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체학습은 2012년 5월까지 근 10년간 77차례 개최되었는데, 이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관련 주제를 다룬 것은 2003년 7월 제6차 학습 “당의 사상이론과 여시구진(与时俱进)의 역사 고찰”을 포함해 5차례였는데 비해,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주요 모순’ 재규정 전까지 5년간 총 43차례의 집체학습 중 2013년 6월 제7차 학습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과 2017년 9월 29일 제43차 학습 “당대 세계 마르크스주의 사조와 그 영향”까지 포함해 동 주제를 6차례 다루고 있다(<http://cpc.people.com.cn> 검색일: 2019.8.2.).

시진핑은 또 집권 초기부터 당을 중심으로 한 ‘중국몽’의 실현과 그 실현의 이념적 지도방침 및 기초로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⁹⁾ 실제로 주요 모순의 재규정이 단행된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그는 “사회는 모순의 운동으로 진전하고, 모순이 있으면 투쟁이 있고”, “모순을 회피하는 사상과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¹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위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위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명확하게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그 총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번 주요 모순의 재규정이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http://www.gov.cn> 검색일: 2018.3.8.). 동 보고에

9) 그의 성장 배경에 더해 이러한 이유로, 그가 중국의 구원과 강대국화가 공산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공산당의 영도’를 굳게 믿는 ‘독실한 사회주의자’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p.105.

10) 이는 앞서 언급한 『모순론』에서 마오쩌둥이 했던 말, 즉 “사물의 모순을 부정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사고와 일치한다.

나타난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들은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사상 및 이념적 신념을 표출한 것으로, 그가 그러한 개념들을 단순히 수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듬해인 2018년 5월 4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대회를 위해 인민대회당 대강당 2층 조망대에 내걸린 ‘당 중심, 마르크스주의 견지와 발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쟁취’를 강조한 표어 역시 중국 공산당과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사상 및 이념적 지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¹¹⁾ 시진핑의 이러한 ‘인식과 실천’은 그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및 덩샤오핑 이론 등을 포함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자신의 세계관과 신념의 기초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 등의 개념을 중국몽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도구로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관해 동일한 주장을 펼쳤던 전임 지도부와 시진핑 지도부의 또 다른 차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차원, 즉 이론과 실천적 차원 모두를 ‘실천’으로 통합시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진핑은 2016년 5월 17일 ‘철학사회과학업무 좌담회’를 통해 사회과학 종사자들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발전과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더욱 새롭고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http://www.xinhuanet.com> 검색일: 2018.3.16.), 이는 사실상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적실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확보하고, 이를 ‘중국몽’의 실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용할 것을

11) 표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紧密团结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周围, 坚持和发展马克思主义,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 新华网, 「纪念马克思诞辰200周年大会在京举行 习近平发表重要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5/04/c_1122783753.htm(검색일: 2019.8.6.).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중국몽의 실현과 이를 통해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념적 기초이자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변용 및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현대 중국을 이끌어 온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결국 ‘모순’의 규정과 재규정을 통해 국내 발전과 함께, 세력 전이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략적으로 변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 및 국내적 변화는 이처럼 ‘모순’의 국내 및 국제적 성격을 규정한다. 핵무기의 존재에 더해, 다국적 기업의 활동 및 글로벌 공급 체인의 확산,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와 인적 교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들은 과거와 같이 군사력에 의지해 부를 획득하고 자국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을 제외하면,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이런 추세에 적응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물론, 사회주의 혁명의 원조였던 러시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베트남의 ‘도이 모이’는 모두 국내 및 시대 변화에 따른 적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국제사회로의 편입, 그리고 강대국을 겨냥한 중국의 주장과 입장이 곧 이념대립의 실제적 종식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에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비록 냉전 이전과 같은 양상은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소위 브릭스(BRICS) 국가들 혹은 신흥시장국가들은 서구 선진국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대체는 아니더라도 개혁과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유희복, 2017: 147-150). 중국이 바로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 서 있으며, 또 그 중심으로서 중국은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동서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강대국화를 위해 자신이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인

식한다(王鴻剛, 2016: 11-12). 즉, 중국에게 있어 개혁과 보완을 통한 서구 선진국 중심의 기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현대화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인식되며, 적어도 중국에 이는 ‘발전방식’과 ‘정치체제’의 변화가 단선적이지 않고, ‘역사의 종말’은 도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와 그에 대한 순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중국 특색 글로벌 거버넌스관’에 입각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과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의 설립 등에서 보듯,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정체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 사회주의국가 중국에 있어 ‘신시대’로의 진입 선언은 곧 ‘모순’의 재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몽의 지속 추진과 이를 위한 신시대 선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것은 ‘3개 불변’(三个没有变) 중 주요 모순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부정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부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신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선택인 셈이다. 여기서 ‘신시대’의 도래와 ‘모순’의 재규정은 상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해 중화민족이 다시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중국몽’ 실현의 최종 목표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모순’은 그 국제적 특성을 획득하며 국내의 모순과 연결된다. 즉,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이라는¹²⁾ 정

12) 2017년 10월 27일 제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이 공식 규정한 주요 모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和不平衡不充分的发展之间的矛盾。” 中国政府网, 「习近平：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www.gov.cn/>

치·경제적 차원의 대내적 모순의 해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초한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칙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필요하고, 이는 다시 그 질서의 주요 수립 국가들인 서구 선진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중국이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거치며 ‘모순’의 변화와 재규정에 따라 자신의 대내외 전략을 수립 및 수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개발한 논리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압축시켰고, 2018년 ‘집권 2기’의 의미를 무색게 하며 사실상 장기 집권에 들어선 현 시진핑 정권은 이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변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V.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주요 모순의 재규정

2017년 10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선언과 함께 주요 모순을 재규정한 시진핑 지도부는 이제 과거와 달리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개혁개방 이후 변치 않고 유지되어 온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국정과 주요 모순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위라는 ‘3개 불변’ 중 시진핑은 주요 모순만 수정했다. 그가 다시 규정한 주요 모순은 덩샤오핑이 1981년 규정한

낙후된 ‘사회 생산력’, 후진타오 지도부가 과학발전관으로 규정한 지속 가능한, ‘ 좋고 빠른(又好又快)’ 성장에서 덩샤오핑의 ‘사회 생산력’과 후진타오의 ‘좋은 성장’ 등에 찍힌 초점들을 취사선택해 ‘불균형과 불충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는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부론(共富論)과 같은 분배의 문제 또는 ‘좋고 빠른’ 성장과 같은 속도와 질의 문제를 택일해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면적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들어서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더는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칼도- Hicks 개선(Kaldor-Hicks improvement)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필수 · 노성호, 2017).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로서, 특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중국몽의 목표로 제시한 중국으로서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법은 ‘불균형이나 불충분’이 아닌 ‘불균형과 불충분’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향후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중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분배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겠다는 자신만의 전면적 발전 전략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³⁾

중국몽 실현을 위한 주요 모순의 재규정에서 드러난, 당위적이지만 실천이 지극히 어려워 보이는 이와 같은 구상은 단지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이 경제적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이와 함께 모순을 이루는 대립의 다른 한 축인 ‘아름다운 삶’

13) 新華網, 「China embraces new "principal contradiction" when embarking on new journey」,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7-10/20/c_136694592.htm (검색일: 2019.1.20.).

은 정치와 사회 및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규정된 모순은 정치와 경제 등 여러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의하면 모순하고 있는 두 측면 중 하나는 모순의 주요한(主要的) 측면이고 다른 한편은 부차적(次要的) 측면이다. 그 주요 측면이란 모순 가운데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측면을 가리키고, 사물의 성질은 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모순의 주요 측면이 규정하는 것이다(毛泽东, 1991: 322). 이에 따라 모순의 주요 측면이 사물의 성질을 규정한다면, 그리고 주요 측면이 주요 모순을 포함한 모든 모순의 해결 대상이라면, 시진핑 지도부는 현재 중국 사회의 성질을 초급단계의 사회주의로 인정하는 가운데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을 주요 모순의 주요한 측면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를 통해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부차적 측면을 ‘새로운’ 측면으로 안착시킴으로써 중국을 ‘새로운’ 성질을 가진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신시대’는 따라서 주요 모순의 두 측면이 상호 전화(轉化)하는 시기이자 사회 성질이 변화하는 시기이며, 사회주의 초급단계 내에서 세분화를 통한 차기 단계로의 이동 혹은 사회주의 초급단계 자체의 탈피까지를 염두에 둔 시기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주요 모순 재규정이 전략적으로 단행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과 시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재규정된 모순의 한 측면인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은 기존 주요 모순의 한 측면인 ‘낙후한 생산력’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그동안 추진되어왔고 또 그 달성을 목전에 두었다고 평가되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기존 평가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¹⁴⁾ 모순의 주요 측면으로 새롭게 규정되기에는 충분치 않아

14)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은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이 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中国政府网, 「习近平：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이미 ‘신시대’에 진입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그것이 주요 측면으로 규정된 것은, ‘두 개의 백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두 개의 백년’은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과 함께 선언한 ‘중국몽’의 실현도 이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이라는 주요 모순의 주요한 측면의 내용이 ‘낙후한 사회 생산력’이라는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다는 측면 역시 ‘중국몽’에 의한 시간적 제약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즉, 낙후한 생산력이 이미 상당 부분 극복된 상태에서 남은 것은 ‘추가적인’ 완성의 의미에서 ‘불균형과 불충분’이며, 이는 기존의 모순과 달리 해결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고, 법과 제도적 개혁 및 개선을 통한 동기와 동력의 부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전략적 주안점은 자연스럽게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 1기부터 추진해 온 전면적 개혁 ‘심화’를 포함한 ‘4개 전면(四個全面)’,¹⁶⁾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문명을 아우르는 ‘5위 일체(五位一體)’¹⁷⁾의 다차원적 발전을 통한 ‘중국몽’ 실현에 놓이게 된다. 중국이

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검색일: 2018.3.8.).

15) 실제로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기존 모순의 한 측면인 ‘물질문화 생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고(提出了更高要求),”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요 모순의 재설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16)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全面建成小康社会), 전면적 개혁 심화(全面深化改革), 전면적 의법치국(全面依法治国), 전면적 준엄치당(全面从严治党)으로 구성된 ‘4개 전면’은 중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모순의 구체적 표현이자 그 모순을 해결할 돌파구로 인식된다(侯德泉, 2017: 31).

17)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5위 일체’의 내용은 중국이 2050년까지 건설하려는 중국의 모습 혹은 정체성과도 일치한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초한 사업이 중국몽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新華網, 「China embraces new "principal contradiction" when embarking on new journey」, <http://www.xinhuanet.com>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어 향후 발전에서 칼도-히스 개선의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는 물론, 특히 정치와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개혁이 불가피하기에 특히 그렇다.¹⁸⁾ 이로부터 그 주체 세력인 중국 공산당은 권력 집중과 소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중국몽’ 실현 추진의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시진핑의 주요 모순 재규정이 갖는 의미는 결국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주요 모순의 연속선상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지도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시대적 임무와 방향성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진 일정 차원에서 이를 본다면, 민주와 법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중국 공산당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나 법치 개념이 아닌 ‘중국 특색’ 민주주의와 법치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는 2021년까지, 정치와 문화, 환경 등 기타 영역의 발전문제는 2035까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¹⁹⁾ ‘시진핑’ 자신이 직접 ‘기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집권 1기 동안 추진해 온 자신으로의 권력 집중, 특히 2018년 초 주석 임기 제한 철폐와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그리고 초기에는 없었던 이정표인 2035년이 ‘두 개의 백년’ 사이에 추가한 것 등은 이러한 시간표와 전략 때

/english/2017-10/20/c_136694592.htm(검색일: 2019.1.20.).

18) 마오쩌둥은 『모순론』에서 그러한 개혁을 추진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그는 모순의 전화(轉化)를 설명하면서 “정치와 문화 등 상부구조가 경제적 기초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 정치와 문화적 혁신이 주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되며, 이것은 유물론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 유물론을 견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毛泽东, 1991: 326).

19) 이는 ‘시진핑 사상’이 당 간부 교육과정은 물론 각급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되었고, 베이징대, 인민대, 사회과학원 등 10여 개 주요 고등교육기관에 시진핑 사상 연구 교육 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대변한다.

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첫 번째 백년’의 도래에 맞춘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은 물론, 이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건설까지를 시진핑 자신이 직접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35년까지 진행될 정치, 사회적 변화는 당연히 ‘4개 전면’과 ‘5위 일체’ 등 그가 추진해온 다수의 정책, 또는 주요 모순 해결 방법이 이미 포괄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시간표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그 결실이 맺어진다고 가정한다면, 1956년 8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던 것처럼, 시진핑은 2035년까지 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그 해결의 결과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해석을 가할 수 있고, 자신이 설정한 시간표에 맞춰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전후해, 시진핑은 2032년 22차 혹은, 역시 8차 당 대회 ‘2차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그러했듯, 이례적으로 2035년 23차 당 대회 ‘2차 회의’에서 2017년 말 19차 당 대회와 제19기 1중 전회 때와 같이 ‘사회성질’ 혹은 ‘발전단계’론에 대한 논단(論斷)을 거쳐,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세분화²⁰⁾ 혹은 종식을 포함해 사회주의 중급 또는 고급단계로의 과도기 진입 선언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주요 모순의 규정 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이미 중국몽의 실현과 이를 위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제도 혹은 관행들을 모두 변화시켰다. 2017년 10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이미’ 신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것은 자

20)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 주장환, 2018,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3호, pp.176-200.

신의 집권 1기가 신시대를 열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주요 모순을 선언하고 이를 해결하며 신시대를 연 것과 달리 시진핑은 신시대를 선언하면서 주요 모순을 동시에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만큼 시진핑은 자신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집권당과 체제가 필요했다. 집단지도체제의 무력화와 같은 탈관행은 칠상팔하를 어기며 왕치산(王岐山)을 임명한 데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격대지정(隔代指定)도 마찬가지였다. 주지하듯, 201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개최를 전후해 소위 격대지정의 부재와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에 따른 1인 집권체제의 강화 및 집단 지도체제의 상실에 학계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통상 가을에 개최되던 3중 전회를 이례적으로 양회에 앞선 2018년 2월 말에 개최했고, 동 회의에서 정치국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표현을 중국 헌법에서 삭제할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이후 이 건의를 현실화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의 붕괴와 덩샤오핑 이후 폐지된 1인 장기집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신시대 선포와 주요 모순의 재규정을 위한 조치이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보다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춘 분석도 중요하지만, 24일 중앙정치국회의가 “당과 국가기구 직능체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는 데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http://kr.xinhuanet.com> 검색일: 2018.3.5.). 앞서 보았듯, 모순의 인식과 규정이 갖는 의미는 이론은 물론, 현실적 차원에서도 권력의 주체와 대상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

오쩌둥은 주요 모순의 규정에 착오를 범함으로써 그가 이끌었던 공산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반신반인으로서 행사했던 강력한 권력을 상실해야 했다. 사회의 모순을 규정하는 주체의 판단과 해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는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 낸다”.²¹⁾ 이는 현재 주요 모순의 규정과 해법의 제시 및 실천에 의한 그 적실성 증명에 회의가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주요 모순의 규정자인 시진핑에게 지워질 수 있으며(이동률, 2017: 29), 그의 권위는 물론 권력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자체의 집권 정당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꿈’ 실현이 장기 연기되거나 그 실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력은 그 본질을 구성하는 정당성과 그 정당성의 증명 여부에 의해 언제든지 그 행사의 주체를 교체할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집권 2기’에 들어선 시진핑의 권력 강화 혹은 그에게로의 권력 집중이 곧 시진핑 1인 지도체제의 확립이나 장기 집권 혹은 집단 지도체제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요 모순의 재규정이 그 해법의 실현과 모순 인식의 적실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규정한 주요 모순의 내용과 규정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빈부격차와 환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는 물론,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은 이미 전임 정권인 후진타오 시기 초부터 인식되어왔다. 실제로 후진타오 지도부는 그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이인위본(以人爲本)’, ‘조화사회(和諧社會)’, ‘과학발전관’ 등을 제기함으로써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다. 이제는 시진핑의 브랜드처럼 여겨지는 ‘중국몽’ 역시 전임 지도부인

21) 中国干部学习网, <http://www.ccln.gov.cn/dangshidagjian/dangshi/dsyj/148615-2.shtml>(검색일: 2018.1.28.).

후진타오 정권 초기에 이미 그 청사진이 완성되었다(유희복, 2017). 이는 ‘중국몽’이 그 이전 정권인 장쩌민 지도부에도 존재했으며, 역사적으로 역추적할 경우 그 본질적 내용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새로운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님을 알려준다. 그런데도 후진타오 지도부가 아닌 현 지도부에서 주요 모순을 재규정하고, 이를 중국몽과 연계시키기 시작한 것은 후진타오 시기 그려진 청사진 가운데 군 개혁을 포함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펀드, AIIB, NDB와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 물리적 차원의 성과를 시진핑 지도부가 1기에 상당 부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장기 집권의 법적 기반 확보로 인해 언제 종료될지 불분명해졌지만, 집권기의 남은 기간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업무는 이전 지도부가 남긴 중국몽 실현을 위한 소프트 파워, 즉 사회주의 이념과 이를 반영한 법적, 제도적 측면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초한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 1기를 마친 시점에 ‘주요 모순’을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대립으로 재규정한 것은 전략적 필요에 의한 수순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재규정된 모순은 기존의 모순에 비해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는 지적될 필요가 있다.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은 모순의 소재(所在)가 물질적 하부구조임을 명확히 하고 그 해결을 위해 상부 구조를 변화시켜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비해, ‘아름다운 삶’과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은 그 소재와 해법이 상부와 하부구조에 동시에 걸쳐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순의 해법 제시와 추진 및 성과와 관련해 시진핑 지도부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간의 심사숙고와 이론적 정합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를 거쳐 제기되었다기보다는 정세적 고려와 전략적 판단으로 단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시진핑 정권의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그 특성상 시진핑의 권력 강화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자, 시진핑 권력 행사의 전제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시진핑 정권에 의해 단행되었지만, 단속하는 정권이 아닌 영속하는 국가 차원, 더 나아가 국제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시진핑 정권은 ‘중국몽’의 실현과 최종적으로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이념으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신시대’로 계승 및 발전시켜 나아가려 하며, 이를 위해 주요 모순을 재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거와 투표 등 서구식 민주화의 진전 여부, 그리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개혁개방과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미 고성장을 구가하고 기본적 소강사회를 달성해 가던 후진타오 집권 시기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지도부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일련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었고(이정남, 2011: 200), 이로 인해, 혁명 이후 세대인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공식집권 직후인 2013년 4월, 시진핑은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대내외의 기대가 그릇된 것이었음을 “9호 문건(9號文件)”의 학습과 하달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쩌민은 물론, 후진타오 역시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민주주의 없이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고, 사회주의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 장

쩌민과 후진타오의 발언들은 이들의 정치적 이념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장쩌민은 1997년 15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고, 후진타오는 2006년 미국 순방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으며, 2007년 3월 전국인대에서 원자바오 총리도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유현정, 2011: 11). 일견, 이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발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민주’에 대한 이들의 결론은 모두 ‘사회주의 민주’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시진핑도 전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화에 대해서는 시진핑 역시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로 이어지는 동일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신념은 오히려 그를 마오쩌둥과 같은 대열에 올려놓을 정도로 확고함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확신은 2012년 11월 ‘부흥의 길’을 참관한 뒤 공표한 “중국몽”에 나타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강조에서는 물론, 특히 2016년 5월 베이징에서 자신이 직접 주재한 ‘철학사회과학좌담회’에서 그가 보여준 시대 인식과 진단,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을 담은 동서고금의 ‘고전’(古典) 다수를 나열한 데 이어 내린 결론, 그리고 지난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년에 걸쳐 나타난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시진핑의 발언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확신에 기초한 것이며,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내외 정책과 전략에 반영되고 실행된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을 예고한다. 실제로 시진핑은 정권을

인수한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학계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서구에 대한 지적 대항 담론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와 서구식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본격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도 서구식 민주주의가 유일한 체제가 아니며 오히려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우월하다는 점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외적으로 중국특색 글로벌 거버넌스관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AIIB, NDB 등의 추진과 설립, 대내적으로 ‘9호 문건’의 하달은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시각을 대변하는 실천적 사례들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집권 1기에 ‘중국몽’을 선포하고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조 및 강화하고 그 내부에서도 당의 ‘핵심’으로 군림하며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왔다. 집권 2기, 혹은 장기 집권을 앞둔 시점인 2017년 10월, 그는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기존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으로 재규정했다. 그가 재규정한 이 ‘주요 모순’의 해결책은 그가 집권 1기에 선포하고 추진해 온 ‘중국몽’의 실현이고, 그 실현 방법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내세우고 추진해 온 ‘4개 전면’, ‘5위 일체’, ‘4개 의식(四個意識)²²⁾, ‘4개 자신(四個自信)²³⁾,

22) 2016년 1월 2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산당원들이 준수해야 할 일종의 규범으로 제기되었으며, 정치의식(政治意識), 대국의식(大局意識), 핵심의식(核心意識), 일치의식(看齐意識)을 가리킨다.

23) 2016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 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과 두 개의 백년 및 중국몽 실현을 위해 시진핑이 제기한 것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自信), 이론에 대한 자신(理论自信), 제도에 대한 자신(制度自信), 문화에 대한 자신(文化自信)을 가리킨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²⁴⁾ ‘중화민족’의 대표로서 공산당을 정점으로 한 ‘중국몽’에 인민해방군의 ‘강군몽(強軍夢)’은 물론 중국 내 모든 민족과 인민 개개인의 ‘나의 꿈(我的梦)’ 등 모든 계층과 영역, 주체의 ‘몽’을 수직적으로 포괄하는 것 등을 망라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서양이 기대하는 길이 아닌 중국만의 사회주의의 길, 즉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향후 중국 강대국화의 길로 인식하고, 강대국 중국이 걸어야 할 길로 선택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그럴 때 그가 규정한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인민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충족됨으로써 주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중국은 서구 혹은 미국식 발전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사회주의의 현대화 강대국으로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함으로써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V. 결론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도입 초기 리따자오와 천두슈, 이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거치며 중국의 특수성과 실천을 강조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시대변환적 단계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가하고

24)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이 공식화된 2012년 11월 개최된 18대 보고에서 24자 형태로 정리, 제기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부강(富強), 민주(民主), 문명(文明), 화해(和諧), 사회 차원의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개인 차원의 애국(愛國),敬业(敬業), 성신(誠信), 우선(友善) 등 12개 가치를 그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주요 모순의 규정과 모순의 주요 측면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통해 대내외 정세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주의 비판과 중국의 특수성, 인식과 실천의 균형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그리고 덩샤오핑은 흑묘백묘, 진리표준, 사상해방, 실사구시 등으로 마르크스주의, 특히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교조주의적 수용 비판과 실천적 검증 주장을 통해서 집권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요 모순을 재규정하고 이를 개혁개방 정책의 기초와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했다(서진영, 1997: 120-125; 판초프·레빈, 2018: 451-452). 이들이 그러했듯,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자신의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중국 지도부의 핵심 시진핑 또한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주요 모순’의 재규정을 통해 이전 지도자들과의 이념적 계승과 결별을 동시에 선언하고 자신의 사상이 중심이 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집권 정당성 및 관련 정책 추진의 ‘이론적’ 기초와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19차 당 대회를 통해 단행된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전술한 맥락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개혁을 심화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의 일환이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견지해 온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비롯한 ‘3개 불변’ 중 주요 모순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불변 혹은 불가변인 상태에서, 중국몽 실현에 추동력을 가하기 위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요 모순’뿐이었고 또 ‘신시대’의 선언과 함께 실제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기실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은 주요 모순의 변화가 나머지 두 개, 즉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는 국정에 관한 판단을 바꾸지 않았으며, 중국이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

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과 주요 모순 재규정이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중국화 된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세와 전략적 필요에 의해 단행된 것임을 시사한다.

시진핑의 ‘신시대’의 선언과 주요 모순의 재규정이 중국몽의 실현을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이라는 것은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 시대의 계승과 종결을 함께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서 보다 분명해진다. 시진핑은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지난 집권기 동안 공산당과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왔고, 당의 ‘기본 노선’의 견지가 당과 국가의 ‘생명선’이며, 그 기본 노선은 덩샤오핑 시절 선언된 ‘1개 중심’ 즉, 경제건설과 개혁개방, 그리고 4항 기본원칙, 즉 ‘2개 기본점’임을 밝혔는데, 이는 재규정된 주요 모순의 해결을 위한 향후의 방침 설정과 추진에서 그가 본질적으로 덩샤오핑으로 대변되는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그리고 마오쩌둥으로 대변되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과정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명의로 향후에도 지속 견지 및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 선언과 이에 따른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이처럼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발전시켜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시진핑 자신이 계승했다는 선언인 동시에, 집권 1기 자신이 구상하고 실천한 대내외 거버넌스 사상이 포함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념적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기존의 주요 모순 및 기존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종식을 고하는 도구로서 변용된 것이기도 하다. 마오쩌둥 시대에 종결을 고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더는 혁명 시대가 아닌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선언이 필요하고, 덩샤오핑 시대에 종결을 고하기 위해서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가 이제는 당시 사회주의 초급단계 초기의 ‘주요 모순’과는 다르므로 그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시진핑은 21세기 중반 중국몽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업 달성을 위해 ‘신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이에 상응한 과거와의 결별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시대’에 걸맞은 ‘주요 모순’을 재규정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 및 노선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과거 유산의 계승과 발전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전략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러한 변용이 마오쩌둥이 시작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가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발전과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진화해왔고 시진핑 자신의 집권기를 거치며 이제는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선언으로 가능하며,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은 그 전제였던 ‘1개 중심과 2개 기본점’이라는 생명선 위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全面深化改革)’를 포함한 ‘4개 전면’과 ‘5위 일체’ 등 자신의 정책을 통해 계승 및 발전되고 있고, 기존 주요 모순의 한 측면인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는 ‘신시대’에서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로, 다른 한 측면인 “낙후된 사회 생산력”은 ‘신시대’에서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으로 진화했다는 선언, 즉 ‘주요 모순의 재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도희, 2014,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에 대한 고찰 - 중국 사회주의 정체성의 근원을 찾아서 -」,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3호, pp.1-24.
- 마오쩌둥, 이등연 옮김, 1989, 『실천론·모순론』, 서울: 두레문고.
- 서진영, 1992, 『중국혁명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서진영, 1997,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출판.
- 양갑용, 2017,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집체학습 연구: 계승과 변화의 중첩과 이반」,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0권, 제10호, pp.116-154.
- 유현정, 2011, 『중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 유희복, 2017,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실천」, 『아태연구』, 제24권, 제3호, pp.137-174.
- 유희복, 2017, 「강대국화 과정에서 중국의 지적 대향과 실천: ‘화평굴기’와 ‘중국몽’을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0권, 제10호, pp.5-44.
- 이동률, 2017.11.1.,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의 변화와 연속성」, 민주연구원 『제2차 동북아 외교안보포럼』 발제 자료.
- 이정남, 2011,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비교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54권 제3호, pp.183-213.
-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 주장환, 2018,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5권, 제3호, pp.176-200.
- 최필수·노성호, 2017,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경제적 특징: 금융, 국유기업, 토지」, 『현대중국연구』, 제18집 4호, pp.141-177.
- 판초프·레빈, 유희복 옮김, 2018, 『설계자 덩샤오핑』, 서울: 알마출판사.
- 毛泽东, 1991, 『毛泽东选集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 毛泽东, 1991, 『毛泽东选集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 郝宇彪, 2017, 「社会主要矛盾转变的原因, 内涵与解决思路」, 『新东方』, 第5期,

pp.10-14.

侯德泉, 2017, 「毛泽东关于社会主要矛盾的思想方法及其当代启示」, 『湖湘论坛』, 第5期, pp.28-34.

王鸿刚, 2016, 「现代国际秩序的演进与中国的时代责任」, 『现代国际关系』, 第12期, pp.1-14.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London: Pelican Books.

Gouldner, A. W., 1980, The Two Marxism: Contradictions and Anomalies in the Development of Theory, London: Macmillan.

Schram Stuart, 1989, The Thought of Mao Tse-Tu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신화망, 「시진핑 총서기, 다량산 복지서 빈곤 구제 상황 시찰」, http://kr.xinhuanet.com/2018-02/12/c_136968353.htm(검색일: 2018.2.28.).

신화망,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19기 3중전회 소집키로 결정」, http://kr.xinhuanet.com/2018-02/25/c_136998754.htm(검색일: 2018.3.5.).

인민화보사, 「중앙경제공작회의 “개혁 심화 핵심은 3거1강1보에서 3대 난제로 전환”」, http://www.chinacore.com/krj/201712/t20171222_800112873.html(검색일: 2018.3.17.).

한국무역협회, 2017,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내용 및 2018년 경제정책 방향」, <http://www.kita.net>(검색일: 2018.1.12.).

理論網, <http://www.cntheory.com/zydx/2018-01/ccps1801095H2V.html>(검색일: 2018.1.28.).

新華網, 「纪念马克思诞辰200周年大会在京举行 习近平发表重要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5/04/c_1122783753.htm(검색일: 2019.8.6.).

新華網, 「习近平: 在哲学社会科学工作座谈会上的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5/18/c_1118891128.htm(검색일: 2018.3.16.).

新華網, 「China embraces new "principal contradiction" when embarking on new journey」,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7-10/20/c_136694592.htm(검

색일: 2019.1.20.).

中国干部学习网, <http://www.ccln.gov.cn/dangshidagjian/dangshi/dsyj/148615-2.shtml>(검색일: 2018.1.28.).

中国共产党新闻网, 「中央政治局集体学习」, <http://cpc.people.com.cn/GB/64162/66214/index.html>(검색일: 2019.8.2.).

中国共产党新闻网, 「中央政治局集体学习」, <http://cpc.people.com.cn/GB/64162/111911/index.htm>(검색일: 2019.8.2.).

中国共产党新闻网, 「中央政治局集体学习(十八届)」, <http://cpc.people.com.cn/n/2012/1119/c352109-19621672.html>(검색일: 2019.8.2.).

中国政府网, 「习近平: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 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在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www.gov.cn/zhuanti/2017-10/27/content_5234876.htm(검색일: 2018.3.8.).

The New Principal Contradiction and the Chinese Dream :

A Strategic Change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oward Great Power

Yoo Hee Bok(Part-time Lecturer of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China's Xi Jinping leadership, which intends to maintain the identity as a socialist state and move to the global center stage, has redefined the principal contradiction that has been formulated for nearly 40 years since October 1981.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ever-growing material and cultural needs of the people and backward social production” has thus been changed to one between “unbalanced and inadequate development and the people's ever-growing needs for a better life”. The principal contradiction functions as a tool of recognition and practice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ociety in the socialist state. The principal contradiction newly defined with the declaration of 'New Era' is a strategic transformation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tended to gain momentum necessary to push forward for the realization of the 'Chinese dream' by the middle of this century in that it is defined in vague and abstract term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and does not show essential difference from previous principal contradic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Key words

Principal Contradicti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Dream, Xi Jinping Thought, Power Transition